

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 —

이계호 베네딕토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지도신부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면서 만나게 되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과 교직원 선생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봉사자들께서 환우분들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뽑힌 분들이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쁘게 자원해서 봉사하기를 선택하여 각자의 탈렌트(재능, 능력)를 공동선을 위해서 투신하시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많은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이 다양한 봉사의 소임을 하지만 결국 이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전하는 실천일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태 11,29)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聖心)으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호스피스 봉사자는 한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호스피스 봉사자인 우리는 경청과 공감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경청은 말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통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미소로, 표정으로 손짓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공감합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이 감각이 더욱 발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나눔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

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양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의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 있었다.

금이 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찬 모습 그대로였다.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지 않니?

너는 금이 갔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금이 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또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겨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조금은 금이 간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37)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

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성경의 예화를 통해 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호스피스 영성을 살펴봅시다.

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종교적) 배경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심지어 우상숭배자들로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가 물었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예화를 든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던 율법 학자는 당대에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고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한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율법에 따로 올바른 하느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스스로를 의인으로(바리사이파) 자처할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되어 준 이는 그 어떤 사제도, 레위인도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우상숭배자들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이나 율법적인, 정례화 되고 고착화(경직) 되어 있는 마치 죽은 모습처럼 비쳐지는 신앙(믿음)의 태도들이 아니라, 비록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닮아 있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예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등장인물들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초주검이 된 사람을 냉정히 지나쳐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익명의 “어떤” 사람으로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오늘 예화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 앞에서는 비정한 모습을 보인 사제일지, 아니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기에 급급한 냉혹한 레위인의 모습일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모습일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일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살펴봅시다.

제 직무실에는 CMC 영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있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 (중략)”

이는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체현(육화)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는 이 영성은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모든 의료진들/교직원들/봉사자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우선 시해야 할 것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체현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

에 체현(육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another christ, alte cristo).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셨던 사랑과 연민, 측은지심을 우리도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먼저 예수님(성모님)으로 철저히 무장된 후에 비로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CMC의 영성이요, 바로 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일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온갖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여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분, 바로 여러분이 매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나는 모든 아픈 분들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여행에 아주 필요한 귀한 물건)를 아낌없이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하루’를 함께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상처를 바르고 싸매어 주었던 기름과 포도주, 붓대 그리고 여관까지 태워 주었던 이동 수단인 노새 등은 마치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모든 의료수단, 자동차와 의료장비와 의료약품들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충동원’하여 초주검이 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을 살펴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을 보라!

그는 강도들을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가졌다! 심지어 그는 강도 만

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할 길마저 잠시 미루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를 묵으면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가 초추검이 된 사람에게 갖는 연민과 사랑, 측은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기꺼이 수정하면서까지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가져야 할 마음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발 더 나아가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화(재물)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최소의 경비를 남기고 다 썼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호스피스 봉사자들께서 병실에 입원해 계시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무엇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유심히 살피고, 기꺼이 경청하고 어루만져주며 영

육을 치료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봉사의 소임을 마친 다음에도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염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봉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자원봉사자의 영성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육으로 아픈 이들에게 조건 없는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가 없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종사자들, 바로 여러분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의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손길과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3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황관옥 회장, 염혜아 부회장, 유정희 이사,
윤명숙 이사, 유양숙 감사

